

권력과 주체성: 비판적 역사와 심리학

나는 이 글을 케네스 게렌^{Kenneth Gergen}과 칼 그라우만^{Carl Graumann}이 1991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조직했던 심리학 담론의 역사적 차원에 관한 심포지엄을 위해 작성했다. 심포지엄의 목적은 여러 상이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정신생활의 문화적 구성에 기여하는 이데올로기적, 지적, 정치적, 경제적, 문학적 힘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나는 인간 개인을 둘러싸고, 표현하고, 설명하고, 다루었던 절차들과 실천들이 단지 주관적 현실이나 문화적 신념의 표현이라서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개인들에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조건들, 자아의 능력과 행위를 판단하는 일련의 규범들, 자아를 형성하고 개조하는 테크닉들을 제공해주는 가변적인 의미작용 체계를 구축했다. 그것들은 신념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열망, 이상, 희망, 공포를 구현한다. 그것들은 일련의 사회적 프로그램, 개입, 관리적 기획과 관련되어 왔다. 또한 그것들은 자아의 본성에 관한 일련의 비판적 생각들을 구성했고, 개인들의 본성 및 진리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사회적 질서, 조화, 평온, 안녕에 대한 개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인들을 통치하는 문제들을 산출했다. 이 글의 최종 판본은 커트 댄지거^{Kurt Danziger}, 카트린 루츠^{Catherine Lutz}, 질 모라프스키^{Jill Morawski}, 로라인 대스톤^{Lorraine Daston}, 일밍가드 슈토블^{Irmgard Steuble} 등의 글과 함께, 그라우만과 게렌이 편집한 『심리학 담론의 역사적 차원들』(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에 실렸다.^{*)}

1. 심리학, 역사, 주체성

인간 존재는 인간 역사와 문화의 영원한 토대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인공물이다. 이는 우리 근대 서양의 인간관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을 상이한 방식으로 지적해왔던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주는 교훈이다. 그런 [근대 서양] 사회에서, 자아^{self}는 자연적으로 유일하고 개별적인 단위, 정의하자면 마치 개인 생애사의 경험들이 각인되는 심리^{psyche}라는 내면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의 경계로 이해된다. 하지만 근대 서양 사회가 자아를 그런 내면적 능력을 지닌 신념과 욕망의 자연적 장소, 행동과 결정의 자명한 기원, 상이한 맥락과 시간에 걸쳐 일관성을 보여주는 안정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독특한 것이다.¹⁾ 또한 근대 서양 사회회가 그런 자아관에 따라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들을 설립하고 정당화하는 것도 독특한 것이다. 그런 장치들은 책임과 의도라는 관념에 따른 법률, 진실성의 가치중시와 정서주의^{emotivism}²⁾에 따른 도덕성, 그리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치를 말한다.³⁾ 이런 사회들에서 심리학은 과학적 학문으로, 즉 자아에 대한 실증적 지식이자 자아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그에 개입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출현했다.⁴⁾

*) [역자—이 글은 부분 수정되어 Nikolas Rose, *Inventing Ourselves: Psychology, Power and Person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48 이하에 실렸다. 이 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www.academyanalyticarts.org/rose1.htm>]

1) 예를 들어, 다음 책을 실린 논의를 참조하라. P. Heelas and A. Lock, *Indigenous Psychologies: The Anthropology of the Self*, London, Academic Press, 1981.

2) [역자—윤리적 진술이나 발화는 명제가 아니라 감정적 태도를 표현한다는 주장. 이런 진술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뿐이고 청자에게 어떠한 감정을 환기하거나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는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고 본다.]

3)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하라. A. MacIntyre, *After Virtue*, London, Duckworth, 1981

우리가 “자아의 역사”와 심리학의 역사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는 자아의 역사와 심리학의 역사를 심성의 공통 역사 속에 위치시키도록 유혹한다. 따라서 두 가지 역사는 아마도 친밀성의 증대와 사적 영역의 구성이라는 수 세기 동안의 과정으로부터 출현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사유방식의 요소들로 간주될 것이다. 사생활의 역사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다양한 사적 영역들이 점차 공적 영역과 구별되는 동시에 공적 코드에 의해 규제되고 공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관습에 종속되었던 방식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준다.⁵⁾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적 흔적들로부터 주체성의 역사를 되찾을 수는 없다. 이런 문서들과 이미지들을 통해 그것들을 작성한 사람들, 혹은 그것들에 묘사된 사람들의 실질적인 내면의 삶을 해석한다는, 즉 발견한다는 주장은 해석학적 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해석”을 가장하여 오래 전에 죽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선입견을 단순히 융합할 것이다. 심리학, 과거, 현재라는 고문서를 구성하는 텍스트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식의 코드들, 설명의 전제들, 윤리적 가치들에 의해 규율되고 규제되는 문서상의 이런 단어들로부터, 사유가 그것을 포착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어떤 “실질적” 상태에 이르는 경로를 결코 추적할 수 없다.

나는 자아의 역사성과 심리학의 역사 간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는 이런 관계를 문화나 심성의 총체적 전환 과정 속에 위치시키지도 않고, 잃어버린 지시 대상을 되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를 둘러싸고, 설명하고, 다루었던 흔적들, 텍스트들, 절차들, 실천들은 주관적 현실이든 문화적 신념이든 간에 단순한 표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이보다 훨씬 실증적이고 생산적이다. 그것들은 대단히 다양한 신념들, 열망들, 이상들, 희망들, 공포들을 구현한다. 그것들은 자아의 능력과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 도덕주의자들과 교사들이 정교화 했던 다양한 규범들과 관련되었다. 그것들은 권위자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프로그램들, 기획들, 테크닉들과 결합되어 왔다. 그것들은 개인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다잡으려는 판단과 계산의 체제들을 뒷받침한다. 또한 그것들은 사회적 질서, 조화, 평온, 안녕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인간 존재로서 그들의 진정한 본성에 부합하도록 개인들을 통치하는 문제들에 관한 일련의 비판적 성찰을 수행하게 해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심리학은 단순히 이론적 학문으로 간주될 수 없다. 오히려, 심리학이란 용어는 일련의 사유 방식들, 행위 방식들, 실천들, 테크닉들, 계산 방식들, 루틴과 절차들, 전문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심리학에 대한 분석은 일관되고 한정된 영역으로 당연하게 규정된 분과학문의 경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해서는 안 된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분명히 대상, 개념, 이론의 일치, “패러다임”의 층위에서 통일적인 것이 아니다. 통일성은 19세기 말 교육적이고 제도적인 통합 이후에 가능했다.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사람들에게 대한 사유와 개입의 심리학적 방식들과 범죄학, 정치철학, 통계학, 의학, 심리치료와 같은 다른 담론들 간의 전략적 관계와 내용적 연관이 존재한다.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심리학은 세계와 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관한 새로운 사고 형태들의 참여자이자 수혜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 심리학은 객관성의 새로운 영역들의 생산과 결부되어 있었다. 심리학은 어떤 낡은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게 했고, 또한 어떤 새로운 것을 사유하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들었다.

2. 우리는 심리학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가6)

우리가 그런 복잡한 사유와 행동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 나는 심리학의 “비판적” 역사를 위한 몇몇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심리학의 비판적 역사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 상이한 종류의 심리학사, 곧 “순환적” 역사 및 “비판”과 구분될 수 있다. 순환적 역사라는 용어는 조르주 칸길렘(Georges Canguilhem)에게서 유래한다.⁷⁾ 칸길렘은 순환적 역사를 과학의 분과학문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특정 견해에 입각하여 부분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을, 분명 경멸조

4) 다음을 참조하라. N. Rose, *The Psychological Complex: Psychology, Politics and Society in England 1869 - 1939*, Routledge and Kegan Paul, 1985.

5)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하라. R. Chartier, ed., *A History of Private Life, Vol. III: Passions of the Renaissance*, Cambridge, MA: Harvard/Belknap.

6) 나는 이 표현을 이언 해킹 Ian Hacking의 글, 「우리가 통계학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가?」에서 빌려왔다. Ian Hacking, How should we do the history of statistics, *I & C*, 1981, 8, 15 - 26.

7) G. Canguilhem, *Études d'histoire et de philosophie des sciences*, Paris, Vrin, 1968, and G. Canguilhem, *Ideologie et rationalite*, Paris, Vrin, 1977.

를 띠지 않은 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종류의 역사는 “심리학의 역사” 따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시대부터 출발하는 교과서와 책자에서 익숙한 것이며, 이는 “지나간 것”으로부터 “승인된 것”을 구분함으로써 작동한다. 승인된 과거는 어느 정도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승인된 과거는 현재에 이르고 현재를 예견하며, 현재는 다양한 전통의 계승자가 된다. 이는 천재, 선구자, 원인influences, 장애 극복, 결정적 실험, 발견 등의 과거이다. 지나간 역사는 이런 승인된 역사와 대립된다. 이는 잘못된 경로, 오류, 환상, 선입견, 신비화의 역사이다. 모든 서적, 이론, 주장, 설명은 이런 오류의 역사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사유 체계의 과거와는 어울리지만 현재에는 부적절한 것이다. 순환적 역사는 현재를 과거의 누적이자 동시에 과거의 역사성을 조명할 수 있는 관점으로 취급한다. 순환적 역사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것이며, 대부분의 과학 담론들에서 구성적 역할을 수행했다. 왜냐하면 순환적 역사는 하나의 분과학문에 수반되는 진리의 체제를 구분하기 위해 과거를 이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순환적 역사는 현재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구성하기 위해 역사를 사용한다.⁸⁾

다른 방식으로, 역사는 비판적으로 서술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비판은 공통된 목적, 즉 분과학문의 과거를 드러냄으로써 분과학문의 현재를 비-합법화하고 그 결과 상이한 미래를 서술한다는 목적을 공유한다. 분과학문 내부로부터 기술된 심리학에 대한 역사적 비판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도덕적, 방법론적 장애들을 [기존 역사에] 투입시켜 개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다양한 심리학을 향한 진보를 방해하거나 왜곡해왔던 역사를 추적해왔다. 이런 역사적 비판은 심리학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하지 않게 한다. 이런 역사적 비판은 심리학이 당위적인 무엇으로 변하지 않게 해준다. 여기에서 역사는 과거를 수단으로 사라진 잠재력을 회복하고, 망각된 운명을 재생하며, 대안적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에 각인시키는데 사용된다.⁹⁾ 심리학 외부로부터의 역사적 비판은 학문의 과학성을 일종의 그림자놀이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학문적 주장의 변천이란 단순히 외부적인 힘들의 유명적 투사에 불과하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과학 분과들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을 과학자들의 사회적, 전문가적, 지적 이해관계가 펼쳐지는 영역으로 간주했다. 즉 심리학과 심리학자들은 모든 지식이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확증할 뿐이다.¹⁰⁾ 보다 엄격한 관점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의 발전과 운명은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그것을 정복하려는 일련의 시도들과 결합되어왔음이 역사에서 밝혀진다. 여기에서 심리학은 사람들을 보다 잘 조작할 목적으로 그들을 제어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구현한다고 간주된다. 심리학적 지식은 권력의 시종이며, 역사는 객관성을 가장한 이런 예측, 즉 합리성을 가장한 이런 조작적 목적을 폭로한다. 여기에서 심리학은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지배의 일반적 과정의 사례이자 도구로 간주된다.¹¹⁾ 또한 비판은 문화사가들이 심리학에 접근해왔던 방식이다. 문화사가들은 심리학을 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들, 즉 나르시시즘, 친밀성의 지배, 미제너레이션“me” generation¹²⁾,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쇠퇴, 신이 사망한 시대의 확실성 추구, 진실성에 대한 가망 없는 추구라는 특징 등의 지표로 심리학을 간주한다. 여기에서 심리학은 단순히 한 세대의 심성에 관한 징후이다. 이 세대는 내향적이고, 고립적이고, 자기만족적인 개인들의 등장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에 따르면 진리란 집합적이거나 신성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다.¹³⁾

비판은 지식과 사회 간의, 진리와 권력 간의, 심리학과 주체성 간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비판은 다소 환원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비판에 따르면, 심리학은 단지 그것이 기능을 충족시키고, 사람들을 조작

8) 물론 다음 글이 이것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Edwin Boring, *A History of Experimental Psychology*, London, Century, 1929.

9) 예를 들어, 현대 사회심리학자들이 미드 G. H. Mead의 작업을 재검토했던 방식을 들 수 있다. 일레로, 다음을 참조하라. R. M. Farr, On the varieties of social psychology: an essa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y and other social science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978, 17, 503-25.

10) 예를 들어, [과학기술사회학 가운데] 에든버러 학파의 저작들을 참조하라. D. MacKenzie, *Statistics in Britain 1865 - 1930: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81.

11)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하라. Loren Baritz, *Servants of Power: A History of the Use of Social Science in American Industry*, Middletown,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1974. 또는 Stuart Ewen, *Captains of Consciousness*, New York, Basic Books, 1976.

12)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대의 젊은 층은 충을 일컫는다. 1970년대 중반 작가 톰 울프(본명 토머스 케널리 울프 1931~)가 지칭했다—동아일보, 현대시사용어사전 온라인판, 2004]

13) R. Sennett, *The Fall of Public Man*, London, Faber, 1977; P. Rieff, *The Triumph of the Therapeutic*, London, Chatto and Windus, 1966; C. Lasch, *The Culture of Narcissism*, London, Abacus, 1980.

하고, 적응을 강제하고, 지위를 정당화하고, 결여를 은폐하고, 거짓된 안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 비판이라는 관념에 반하여, 나는 비판적 역사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런 시도는 유죄 판결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중한 분석적 판단을 위한 공간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인 것이다.¹⁴⁾ 말하자면, 비판적 역사는 우리의 현존 진리 형태들을 가능하게 만든 조건들을 검토함으로써 현재를 다르게 사유하기 위해, 즉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당대의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조사적, 역사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주관적인 것 간의 구성적 관계들에 관한 비판적 역사는 분명 권력과 연관된다. 하지만 그런 비판적 역사는 심리학을 권력 관계의 기호, 징후, 사례, 효과 이상의 것으로 간주한다. 심리학의 경우에 권력은 부정적 혹은 도구적 표현으로, 즉 조작하고, 부인하고, 다른 목적들에 봉사한다는 식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심리학은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권력 효과”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인간” 과학들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은 “서양”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종류의 현재를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체성, 심리학, 사회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자아의 행위와 역량, powers 이 윤리와 도덕성, 정치와 관리, 진리와 지식과 연결되는 영역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서양] 사회는, 지난 2세기에 동안 자아에 대한 지식들과 불가결하게 결합되어 왔던, 자아의 형성, 규제, 관리를 위한 일련의 계획과 절차를 통해 부분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리학 —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심리psy” 지식들 — 은 지난 세기에 걸쳐, 특히 유럽, 미국, 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권위와 주체성을 연결했었던 실천들과 테크닉들의 재조직과 팽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3. 심리적인 것의 형성

최근까지, 심리학자들은 개별적인 세 영역을 구분하면서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첫 번째로] 심리학이 이해하려고 했던 “실재”의 영역이 존재했다. 이런 현실은 심리psychic, 의식, 인간의 정신생활,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지만, 어떤 경우라도 현실은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두 번째로] 이런 “심리학”의 경우에, 지식의 영역이 존재했다. 또다시, 무엇이 “심리학”을 구성하는지는 해석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심리학은 심리학자 혹은 그 선구자들과 이론들, 신념들, 서적들, 논문들, 실험들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 “문화” 혹은 “세계관”으로 간주되는 “사회”의 영역, 또는 — 위와 같은 시도들에 대한 일종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 “산업화”같은 과정들의 영역이 존재했다. 물론 그런 역사들은 항상 아니더라도 가끔씩 “심리학”과 “사회” 간의 관계, 즉 어떻게 종교와 편견이나 대학과 전문가같은 제도적 배치 따위의 “사회적” 현상이 “심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런 역사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어떻게 심리학 이론들과 전문가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 즉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떤 현상에 적용되었으며 어떤 성취를 보였는가를 질문했다. 하지만 설사 그런 역사가들이 인간 개인의 정신생활, 즉 주체성이라는 심리학적 지식의 대상과 심리학적 지식 간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드물었다.

최근까지 많은 저자들이 이런 영역의 구분에 성공적으로 도전해왔다. 심리학은 “사회”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분리된 주어진 영역으로 간주될 수 없다. 심리학의 진리가 생산되는 과정들은 구성적으로 “사회적”이다. 게다가, 심리학의 대상은 주어져 있고, 독립적이며, 지식에 선행하며, 단순히 “발견되는” 어떤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심리학은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상을 구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커트 댄지거가 우아하게 보여준 것처럼, 심리학의 “주체”는 분과 학문의 구성이라는 의미와 함께 심리학의 사유 대상, 즉 인간 주체의 구성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¹⁵⁾

14) 물론, 현재 비판적 역사의 기획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특히 아래에서 논의되는 커트 댄지거 Kurt Danziger의 작업과 부스 A. R. Buss가 편집한 다음 책이 주목할 만하다. A. R. Buss, ed., *Psychology in Social Context*, New York, Irvington, 1979.

15) K. Danziger, *Constructing the Subject*, Cambridge: Cambridge U. P., 1990.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K. Gergen, The social constructionist movement in moder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1985, 40, 266-75.

그렇다면, 심리학적 영역은 “구성된” 영역이다. 그러나 지위와 품위에 대한 불안에 덜 시달리는 과학 분야들에서 과학철학자들과 과학사자들은 과학적 진리가 구성의 문제라는 점을 오래전부터 받아 들여왔다. 그렇다면, 심리학을 과학적 지식의 다른 영역들로부터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인가?

현상기술¹⁶⁾

새로운 과학적 객관성의 영역들이 “구성”된다는 주장은 [객관적 영역으로] 생산된 것이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의 단절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양자역학, 상대성, 비유클리드기하학에 관한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저술들은 이런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바슐라르는 니체에 동의하면서 “결정적인 모든 것은 오직 “...에도 불구하고” 탄생한다. 모든 새로운 진리는 [사실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탄생한다. 모든 새로운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획득된다”고 말한다.

『새로운 과학의 정신』에서, 바슐라르는 과학적 이성¹⁷⁾은 경험으로부터의 필연적인 단절이라고 주장한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과학은 현상학이 아니라 “현상-기술학^{phenomeno-technology}”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과학은 구성의 통솔에 따른다.” 다시 말해서, 과학은 경험에 대한 단순한 반성이나 합리화가 아니다. 여기에서 바슐라르가 묘사적인 동시에 규범적이라고 간주하는 과학은 이미 사유 속에서 생산된 실재를 현실로 생산하려는 기획을 수반한다. 과학적 사유에서, “대상에 대한 사유는 항상 기획의 형태를 띤다 ... 과학의 관찰은 항상 논쟁적이다. 그것은 앞선 테제, 선행 모델, 관찰 절차를 확증하거나 거부한다.” 또한 실험은 본질적으로 기술적 수단에 의해 이론이 물질화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일단 관찰에서 실험 단계로 나아가면, 지식의 논쟁적 성격이 훨씬 첨예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도구에 의해 현상은 선별되고, 걸러지고, 정제되고, 형성되어야만 한다. 사실상 먼저 도구가 현상을 생산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따라서 도구는 물질화된 이론에 다름 아니다.”¹⁸⁾

따라서 실재가 어떤 기지의 원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유익한 과학 혁명은 실재적인 것에 관한 범주들의 심층적인 수정을 초래했다.”¹⁸⁾ 사실상, 바슐라르의 인식론적 장애 개념과 과학적 이성¹⁷⁾에 대한 “정신분석” 개념은 과학이 경험적인 것의 유희, 즉 과학적 상상력을 방해하는 기지의 것의 매혹을 끊임없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지침에서 유래한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과학적 객관성의 구성적 본질을 언급하는 것은 과학의 기획을 저해하거나 오류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즉 “비꼬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철학적인 토대를 가지는 “상식적” 지식과 “일상적 경험”의 가치증식에 기초하든지 간에 모든 형태의 경험주의와 반대로 과학적 실재는 “일상적 사유”와 부합하지 않는다. 객관성이 성립되지만 그것이 단순히 “경험되지”는 않는다. 현대의 과학적 실재 — 이는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에도 해당되는데 — 는 우리가 그것을 사유하는데 사용하는 범주들의 산물이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테크닉들과 절차들의 산물이며,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는 증명의 통계적 도구들과 방법들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는 그것의 과학적 주장을 탈-합법화시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들 새로운 객관성의 영역을 구성하는 수단들과 그 영향력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에 불과하다.

진리의 체제

그렇지만, 과학적 활동의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성격에 대한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바슐라르주의적 모델은 심리학적 객관성의 구성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소박하다. 진리는 구성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논쟁의 산물이다. 진리를 향한 전투가 존재하며, 전투 속에서 증거, 결과, 주장, 실험, 자격 등은 동맹을 형성하고 어떤 것을 진실^{the true}로 만들기 위한 계획에서 자

16) [역자—Phenomenotechnics는 한국어로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일단 ‘현상기술’이라고 옮겼다. 바슐라르가 사용한 개념을 로즈가 차용하는 것으로서, 대략적으로, 이미 사유 속에서 상상-표상된 실재를 상상-표상하려는 테크닉들과 실천들을 의미한다. 즉, 현상적 기술이란 과학적 대상의 현실화 과정 혹은 물질화 과정을 가리킨다. 나아가 이는 기억, 의식, 개인화의 테크놀로지란 뜻도 있다.]

17) G. Bachelard, *The New Scientific Spirit*, tr. Arthur Goldhammer, Boston, Beacon Press, 1984 (originally published 1934). 인용은 12-13쪽.

18) *Ibid.*, p.134.

원으로 배치된다.¹⁹⁾ 다시 말해서, 진리는 항상 폭력 행위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진리는 주장들, 증거들, 이론들, 신념들이 “진실”이 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배제의 사회적 과정을 수반한다.

이런 진리를 향한 전투들은 추상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진리는 물질적 형태들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진실, 사실, 주장이 되려면 학술지와 학술대회 등과 같은 진리의 복잡한 장치들에의 참여가 허용되어야만 하고, 진리의 장치들은 진리의 레토릭에 자체적인 규범과 기준을 부과한다. 진리는 어떤 규율 체제의 경계 안팎에서 동맹과 설득을 추진한다. 그런 규율 체제에서 진리를 청취하는 과정은 식별되고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진리는 자신이 실현되고 작동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존재하게 한다.²⁰⁾

그런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심리학적 주장들이 “진실”이 되는 특수한 조건들을 탐색할 수 있다. 브르노 라투어(Bruno Latour)와 미셸 깔롱(Michel Callon)의 작업에서 발전된 “번역” 개념은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번역을 통해 우리는 모든 협상, 계약, 계산, 설득, 폭력을 이해한다. 이런 것들을 덕분에 어떤 행위자나 세력이, 예를 들어 “우리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다른 행위자나 세력을 대표하여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권위를 획득하거나 스스로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²¹⁾ 그런 번역 과정을 통해서, 라투어와 깔롱은 실험실 연구자들, 학자들, 실무자들, 사회적 권위자들과 같은 매우 다양한 실체들과 행위자들(agents)이 서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시간공간상으로 떨어져 있는 장소들의 행위자들은, 특정한 언어와 논리에 따라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표와 운명이 어떤 면에서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간주하게 될 때, 하나의 네트워크로 등록된다.

“심리학적인 것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특정한 “심리학적인” 진리 체제 아래에서 작동했던 네트워크들의 형성 방식에 대한 조사를 수반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사건에서 논쟁적인 동력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즉, 네트워크들은 개인이나 집합적 행위자들에 의한 “권력에의 의지”라는 토대 위에 성립되지 않으며, 특수한 중심들에 의한 네트워크들의 “지배”를 통해서 성립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관련된 것은 사유와 행동의 특정한 형태가 다양한 상황의 행위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결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현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도 깔롱과 라투어가 그런 과정들을 “관념의 확산”이라는 상투적인 개념이나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족이라는 냉소적 개념의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실천적 영역들에서 심리학의 배치와 실험실의 심리학 간의 관계에 관한 단지거의 상세한 검토는, 그런 동맹들을 형성시켰던 정치적 과정과 수사학적 과정들의 일부를 명확히 밝혔으며, 그런 과정들로 인해 심리학적 지식이 타당하다고 간주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정치적이고 수사학적인 노력은 실험실, 교과서, 매뉴얼, 교과과정, 직종단체, 법정, 공장, 가족, 군대 등 심리학적 설명의 정교화, 활용, 정당화를 위한 다양한 장소들 간에 “번역 가능성”을 구축한다.

우리는, 심리학의 경우에, 번역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심리학적 사유를 안정화하고 심리학적 영역을 창출했던 여러 가지 상이한 전술들을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심리학은 사회적이고 개념적인 상이한 권위자들 간의 설득, 협상, 거래를 수반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계산과 거래조건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심리학은 특정한 사건들과 실체들이 특정한 이미지나 패턴들에 따라 시각화되는 지각 방식을 구성했다. 세 번째로, 심리학은 언어의 유통을 특성으로 했는데, 이를 통해 관심사들은 특정한 용어들로 접합되었고, 연대성과 의존성이 특정한 레토릭에 따라 표현되었으며, 목적과 목표가 특정한 어휘와 문법에 따라 이해되었다. 네 번째로, 행위자들을 “심리학화된” 네트워크로 등록하는 것은 생산자, 상인, 의사, 환자와 같이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 성격, 원인 간에 연결을 형성하고 한 행위자의 문제들과 다른 행위자의 문제들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 즉 토대와 해결책에 있어서 두 행위자들이 본

19) 나는 이 문단에서 분명 미셸 푸코가 『지식의 고고학』(London, Tavisock, 1997)과 『담론의 질서』(Social Science Information, 1972, 10, 7-30), 『담론의 정치』(Ideology and Consciousness, 1978, 3, 7-26)에서 행한 일부 주장을 다소 거칠게 압축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논점에 관해서는, 브르노 라투어(Bruno Latour)의 과학적 진리를 둘러싼 투쟁에 대한 분석이 유익하다. 특히 다음을 참조하라.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1988.

20) 이는 커트 단지거의 최근 연구들이 전형적이다. 특히 다음을 참조하라. *Constructing the Subject*, op. cit.

21) M. Callon and B. Latour, Unscrewing the Big Leviathan: how actors macro-structure reality and how sociologists help them to do so, in K. Knorr Cetina and A. Cicourel, *Advances in Social Theory*, London, 1981, p. 279

질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동적이고 요변적(搖變的)인 연결체가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된다. 여기서 각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연결체가 제공하는 자원들을 “번역”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확장하고자 한다.²²⁾ 문제의 규정과 설명의 어휘를 공유함으로써,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사람들 간에,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상이하고 자율적인 영역들의 사건들 간에, 느슨하고 유동적인 연결점들이 성립될 수 있다. 연구자들과 전문가들 간의, 즉 심리학적 지식의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간의 이러한 동맹은 심리학적 지식에 매우 본질적인 것이며, 심리학적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을 구성하는 과정에 특수한 성격을 부여해준다.

분과학문화

19세기 중반이후로 심리학의 “분과학문화”는 그러한 동맹들의 건설과 불가분하게 얽혀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실증 지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그런 실증 지식의 탄생 조건들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측면에서 심리학의 성격을 성립시켰다.

첫째, 아마 기술의 본질에 대한 특정한 규범들과 가치들이 심리학적 진리의 지형을 규정했던 방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통계학과 실험이 매우 중요했다. 심리학적 진리 체제의 성립에서 “도구”와 “방법”의 구성적 역할은 사유와 테크닉 간의 관계에 대한 바슐라르의 도식을 수정하게 한다. 심리학적 진리의 구성에서, 이론의 물질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수단은 종속적 역할이 아니라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심리학이 이론적 명제를 증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채택했던 기술적·도구적 형태들은 심리학적 사유 영역 자체를 제한하고 조형했다. 심리학이라는 분과학문 기획은, 최초의 심리학 실험들, 학술지들, 협회들이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이후 50년 동안 주로 이전까지 심리학이 자신을 정당화했던 방식을 폐기하고 다른 실증적 지식 영역들에서 이미 확립되었던 “참된 테크닉들”을 채택했던 과정을 거쳐 달성되었다.

여기서 매우 두드러졌던 두 가지 진리 테크닉이 “통계학”과 “실험”이었다.²³⁾ 두 가지 모두 심리학이 다른 과학 분과들과 형성했던 동맹뿐만 아니라, 이론과 기술 간의 호혜적 상호작용을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통계학은 애초 “국가의 과학”으로 등장했으며, 특정 영역의 사건과 사태를 파악하고 통치하기 위해 그것들에 대한 수치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고, 지식과 통치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시켰다. 이언 해킹(Ian Hacking)이 설득력 있게 주장한 바에 따르면 — 프아송(Poisson)과 케틀레(Quetelet)가 1830-40년대에 큰수의 법칙을 정식화했는데 — 19세기를 거치면서 통계 법칙은 단지 근원적인 결정적 사건들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예전의 전제가 통계 법칙은 당연히 자연적 현상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법칙이라는 시각으로 바뀌었다.²⁴⁾ 통계적 규칙이 현상의 외견상 무질서한 가변성 아래에 존재한다는 주장의 개념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심리학의 분과학문 기획에서 최초 30여 년 동안, 즉 1870년대부터 이번 [20]세기 초에 걸쳐, 심리학적 진리의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그러한 진리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법들의 구성과 병행되었다. 프란시스 갈통(Fancis Galton), 칼 피어슨(Karl Pearson), 찰스 스피어만(Charles Spearman) 등의 작업에서, “정규분포” 개념으로부터 상관관계의 계산방법까지, 이론과 통계 간의 관계가 통합되었다. 통계학은 이론을 물질화하는 동시에 이론이 설명하는 현상을 생산했던 도구였다. 하지만, 상당히 짧은 기간에, 경험의 요약으로 시작되어 이론의 물질화로 간주되었던 통계 테크닉들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정한 개념적 근거들로부터 분리되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 통계 법칙은 단지 통계적 기법들로 접근되는 자율적인 실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통계적 검증은 단지 수치적 현상의 영역으로부터 유래한 진리를 증명하는 중립적 수단

22) (액체나 젤이) 요변적(Thixotropic)이란 뜻은 “점성 페인트”처럼 압력이 주어졌을 때나 휘저었을 때, 감소된 점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Collins English Dictionary*, London, Collins, 1979.

23) 이런 측면을 다룬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에서 “정규분포”의 역할을 참조하라. N. Rose, *The Psychological Complex: Psychology, Politics and Society in England 1869 - 1939*,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esp. Ch. 5. 또한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K. Danziger, op. cit.를 참고하고, “통계적 도구”에 대해서는 이 편집본에 실린 G. Gigerenzer를 참고하라.

24) I. Hacking, *The Taming of Ch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으로 생각되었다. 수치적 현상은, 사회적·인간적 사건들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의 상이한 설명들을 판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었다.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들”도 그러한 기법들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는 사회과학들이 진실성과 과학성을 확립하고, 진리의 전당에 입장하며, 때로는 정치인, 전문가, 학자라는 의심 많은 청중들에게 그들의 진실성을 확신시키고, 편견과 사변을 과학이라는 당의로 치장했을 뿐이라는 비판에 대항한다고 봤던 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였다. 이태부터, 통계적 규범과 가치가 심리학적 실재에 대한 개념들의 구조에 통합되는, 그리고 특정한 기본적 방식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정당화의 수단들이 나타나게 된다.²⁵⁾

“실험” 역시 심리학을 분과학문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또 심리학을 진리의 장치로 만드는데 필요한 동맹에 전문가, 학술지 편집자, 기금 단체, 동료 학자, 대학 관리자를 포함한 다양한 후원자들을 서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심리학에 수용되었다. 심리 “과학들”과 “자연 과학들” 간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은 그것을 철학 영역으로부터 테크닉에 관한 문제로 옮겨 놓을 때 보다 잘 이해된다.²⁶⁾ 영국과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의심 많은 동맹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번 [20]세기 초 수 십년 동안 심리적 사실의 생산 과정과 입증 과정의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인간 주체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연구 방법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심리학의 “실험 방법”은 물리학과 화학 실험실의 (소박한) 이미지로부터 파생된 증거의 생산 및 평가를 위한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계산가능하고 반복가능하고 안정적인 형태들로 데이터를 산출하고 안정화시키는 일련의 실용적 척도들로부터도 발전했다. 이는 심리학 실험실을 심리적 현상의 생산, 강화, 조작을 위한 이상적 장소로 설정하고, 기술적 숙련을 갖춘 실험자와 단지 데이터의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실험자를 분리하고, 비교와 계산 등에 적합한 기입^{inscriptions}의 형태로 증거를 생산하려고 노력한다. 부상 중인 분과학문 기구가 심리 실험의 형태를 제도화하고 감속하면서, 실험 상황의 사회적 특성들은 중립화되었다. 이를테면, 실험 프로그램의 규범들이 심리학적 주체 자체^즉, 피실험자와 결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심리학의 대상 자체가 규율화되었다. 심리학의 대상은 “유순해”졌다. 또한 심리학적 대상은 그것을 인식하는 기술적 수단을 내면화하는데, 기술적 수단은 심리학적 대상을 사유할 수 있게 하는 형태 자체에 의한다.²⁷⁾ 이 경우 심리학적 진리는 단순히 이론의 물질화가 아니다. 실제로는 아마 그 반대가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실증 과학으로서 심리학의 분과학문화는 실증의 기술적 형태들을 심리학의 대상, 즉 심리학적 주체와 통합시켰다.

심리학화

심리학의 “분과학문화”는 본질적으로 일련의 다양한 장소들과 실천들의 “심리학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심리학은 인간에 관한 진리를 형성하고, 조직하고, 확산하고, 이식하는 다른 방식들과 융합되며 심지어 그런 방식들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권위자들과 전문가들이라는 현실적 혹은 잠재적 지지자들의 규제적 요구와 관리적 요구는 심리학적 진리가 해결을 주장하는 문제들을 비롯해 심리학적 진리들이 개방한다고 공언하는 가능성들을 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심리학화는 인간에 대한 단일 모델이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부과되거나 채택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심리학의 유명한 “비^非패러다임적” 성격이 개인성^{personhood}의 특성에 관한 일종의 지속적 논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개인을 “구성하는” 심리학적 방식들의 이런 가변성은 심리학의 광범위한 영향력에 결정적이다. 심리학의 사회적 실재는 일종의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일관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심리학적 진리의 생산, 확산, 정당화, 활용을 위한 행위자들, 장소들, 실천들, 테크닉들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심리학적 “진리 효과”의 생산은 일련의 영역들, 장소들, 문제들, 실천들, 활동들이 “심리학화되는” 과정과 본

25) 게르트 기저렌저 Gerd Gigerenzer는 이런 수많은 관계들을 밝혀냈다. 이 편집본에 실려 있는 그의 글을 참조하라. 또한 다음 글을 참고하라. G. Gigerenzer, From tools to theories: a heuristic of discovery in cognitive psychology, *Psychological Review*, 1991, 98, 254-67.

26) 심리 실험에 관한 나의 주장은 커트 댄지거의 작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음을 참고하라. Kurt Danziger, *Constructing the Subject*, op. cit.

27) 다음 글을 참조하라. N. Rose, *Governing the Soul: the shaping of the private self*, London, Routledge, 1990, Ch. 12. On "docile objects" see M. Lynch, Discipline and the material form of images: an analysis of scientific visibility, *Social Studies of Science*, 1985, 15, 37-66.

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들이 심리학에 의해 고쳐된 용어들로 문제화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말해, 그것들이 장애가 되는 동시에 인식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심리학화된다.” 아동을 교육하고, 범죄자를 교화하고, 히스테리환자를 치료하고, 아기를 양육하고, 군대를 관리하고,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은 심리학 이론들과 테크닉들을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적합한 심리학 이론이나 주장으로 간주되는 것의 특성과 [다른 한편으로] 이런 영역들에 일종의 심리학적 가시성이 부여될 수 있는 과정들 간의 구성적 관계도 존재한다. 말하자면, 개인의 행위가 심리학의 스크린 위에 비춰지고, 현실이 심리학적 분류체계에 따라 질서지어지고, 능력과 성격과 태도 등이 사회적 권위자들과 심리학 이론가들의 성찰과 계산에서 중요하게 될 때, 개인의 행위는 분명해지고 인식 가능해진다.

제도적 인식론

미셸 푸코는 어디선가 “심리_{psy}” 지식들은 “낮은 인식론적 수준”을 보인다고 언급한다. 실증적 지식의 형태로 “심리”가 조직하는 것과 인간에 관한 이미지, 설명, 의미, 신념이라는 보다 넓은 영역 사이에 경계의 “투과성”은, 이른바, 원자 물리학이나 분자 생물학의 영역보다 “심리”의 경우에 훨씬 높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런 투과성의 문제를 관념의 역사에서 전형적인 형태로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관념의 역사에서 특정한 과학적 담론들은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메타포들이나 주요 통념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와 반대로, 이런 [실증적 지식과 인간에 관한 의미 간의] 관계는 훨씬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층위에서 제시될 수 있다. 말하자면, 심리 지식들의 경우에 실행가능성과 인식론의 상호침투가 존재한다. 우리가 일부 이런 관계들을 이미 검토했지만, 심리학적 인식론의 “실천적” 구성을 다른 방식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바슐라르는 과학적 사유란 과학적 사유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진리의 생신이란 세계에 대한 능동적 개입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심리학적 진리들이 생산되어 왔던 조건에는 특징적인 것이 존재한다. 심리학적 인식론은 많은 측면에서 제도적 인식론이다.²⁸⁾

미셸 푸코는 출현의 표면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장애들 혹은 문제영역들이 응축되는 장치들을 검토했는데, 나중에 문제영역들은 질병, 소외, 치매, 신경증 등과 같은 용어로 합리화되고, 코드화되고, 이론화되었다.²⁹⁾ 가족, 노동 조건, 종교 공동체와 같은 장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그것들은 규범적이며, 따라서 일탈에 민감하다. 그런 장치들은 의료 전문가와 같이 권위자들의 활동에 주목하는데, 권위자들이 장치 내의 사건들을 조사하고 판정한다. 또한 그런 장치들은 장치 내에 나타나는 현상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재범주화하는 특정한 규정의 격자가 적용되는 장소이다.

심리학에 한정해서 보면, 감옥, 법정, 공장, 교실 및 여타 유사한 제도적 공간들 안에서, 심리학이 인식하고자 했던 대상들이 형성되었다. 심리학은 개인 행위의 변동이 규제, 관리, 처벌, 치료의 장치들 안에서 출현하고 그런 변동을 코드화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이런 장치들 안에서, 심리학은 제도적인 가시성의 체계들과 연결되었다. 다시 말해, 심리학이 인식하려 했던 영역들의 지형을 밝혀내고 일부 특징들에 가시성을 부여했던 것은 장치 자체의 규범성이다. 이는 제도의 규범과 표준, 규범과 표준의 한도와 허용치, 규범과 표준의 규칙 및 판단 체계를 가리킨다. 지능, 인격, 태도 등에 대한 심리학의 개념들은 실행가능한 동시에 장치 및 그것의 권위자들의 규율적 요구로 역변역될 수 있는 한에서만 참된 것이 되었다. 따라서, 바슐라르로 되돌아가자면, 자신의 과학적 대상에 대한 심학자의 사유는 과학적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논쟁적으로 현실에 개입하는 형태를 취했다. 오히려, 그런 사유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험 영역을 합리화하고 이해가능하고 계산가능하게 만드는 일련의 시도들에 의해 특징지어졌다.³⁰⁾

그렇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공간을 심리학적 방식으로 이해가능하고 계산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런 문제공간을 원래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관찰하고, 사유하고, 계산하고, 개입하는 심리학적 방식들은 특수한 능력을 지니는데, 그런 방식들이 문제공간들에 가져오는 변형 때문이다. 심리학적 방식들은 권위자들이 행위의 통솔을 다룰 때 개입

28) 다음을 참조하라. C. Gordon, *The soul of the citizen: Max Weber and Michel Foucault on rationality and government*, in S. Whimster and S. Lash, eds., *Max Weber: Rationality and Modernity*, London, Allen and Unwin..

29) In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op. cit., p.41.

30) 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다음 글에서 검토했다. N. Rose, *Calculable minds and manageable individuals*,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988, 1, 179-200.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특이하게 단순화한다. 이른바, “사회 복지”의 변화나 일반적인 의료 실천에서 “개인 중심적” 접근의 부상을 고려해보면, 사회 복지 및 의학의 실천들을 “합리화할 때” 어떻게 심리학이 그런 실천들을 고객이나 환자의 개인성에 관련된 것으로 만듦으로써 그런 실천들의 다양한 과업을 단순화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 심리학은 이런 권위자들에게 일련의 새로운 기법과 테크닉을 제공했는데, 이는 사람들의 과업 할당, 기관의 세밀한 기술적 편성의 배치, 건축 및 시간표와 공간 구성, 작업집단의 조직과 리더십 및 위계를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은 이런 일상적이고 이질적인 활동들에 일관성과 원칙을 부여했는데, 이는 그런 활동들을 동일한 설명 및 사유의 영역에 배치했다. 곧 그런 활동들이 더 이상 임의적인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실증적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 주장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위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행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력이라는 개념이 변형되었다.

따라서 심리학의 힘은 애초에는 인간의 개성 및 차이의 영역들을 조직하고, 단순화하고, 합리화하는 그것의 능력으로부터 발생했으며, 그런 능력이란 치료, 개선, 처벌, 관리, 교육 등의 제도적 기획들을 통해 출현한다. 하지만, 심리학은 그런 영역들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어떤 근본적인 방식으로 변형한다. 이제 이런 변형들의 일부를 살펴볼 차례이다.

4. 심리학의 테크네

우리가 심리학을 단순히 사유의 체계가 아니라 삶의 특정한 형태, 즉 세계를 이용하거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양식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심리학의 테크네³¹⁾로 부를 수 있는 것, 즉 숙련, 기예, 실천 및 일련의 장치로서 심리학의 차별적 특징들을 우리가 식별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³¹⁾ 여기서 나는 이런 테크네의 세 가지 측면, 즉 심리학, 권력, 주체성 간의 관계가 지닌 세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첫 번째는 통치의 원칙들과 프로그램들의 변형이고, 두 번째는 권위[자]의 정당성에서의 변형이며, 세 번째는 윤리의 변형이다.

통치

통치는 특정한 일련의 정치적 제도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에 관한 특정한 사유양식, 그리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특정한 방식을 지칭한다. 이는 지난 2세기 동안 급증했던 “행위의 통솔”을 위한 다양한 계획, 야망, 계산, 전략에 의해 묘사되는 영역이다.³²⁾ 2세기를 거치는 동안, 심리학적 규범들, 가치들, 이미지들, 테크닉들은 다양한 사회적 권위자들이 사람들에게 관해, 그리고 사람들의 악행과 미행, 건강과 질병, 정상과 병리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점점 더 많이 조형하게 되었다. 정상, 적응, 실현과 같은 심리학적 용어에 따라 해석되는 대상들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프로그램, 야망, 계획에 통합되었다. 복지, 안전, 노동 규제의 장치들과 같은 “거시적인” 것으로부터 개별 작업장, 가족, 학교, 군대, 법정, 감옥, 병원과 같은 “미시적인” 것까지, 사람들에게 대한 관리는 심리학적 색채를 띠었다. 심리학은 행위의 통치를 위해 고안된 테크닉들과 장치들에 구현되었으며, 이는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의사, 사제, 박애주의자, 건축가, 교사에 의해서도 활용되었다. 말하자면, 미셸 푸코가 통치성 혹은 간단히 통치라고 부른 행위의 관리에 관한 전략, 프로그램, 테크닉, 장치 및 사유가 “심리학화”되었다. 근대적 정치권력 형태의 행사는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지식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었다.

권위

심리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양” 사회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권위의 본성의 변형과 결부되어 왔다. 첫째, 물론 심리학 자체가 일련의 새로운 사회적 권위[자]들을 만들었으며, 이들의 활동 영역이 행위의 통솔, 즉 주체성의 관리이다. 임상 심리학자, 교육 심리학자, 산업 심리학자, 심리치료사와 상담사와 같은 새로운 권위들은 그들이 심리학적

31) Engineering the human soul: analyzing psychological expertise, paper delivered to 9th Cheiron-Europe Conference, Weimar, September 1990; forthcoming in *Science in Context*, 1992.

32) M. Foucault, On Governmentality in G. Burchell, C. Gordon and P.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Harvester, 1991.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심리학적 테크닉에 숙달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권력과 지위를 주장한다. 둘째, 아마 보다 중요하게도, 심리학이 일련의 새로운 목표들과 문제들의 구성에 결부되어 왔다. 그런 목표들과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권위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데, 이런 정당성은 지식, 객관성, 과학성에 관한 믿음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른 관리의 산물로서 정상성의 출현,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 잠재적 위험으로 진단되어 사회적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예방적으로 관리되는 리스크의 출현이 중요하다.³³⁾

셋째, 이미 존재하고 있는 권위 체계들, 즉 군대의 지휘관, 학교의 교사, 공장의 경영자, 정신병원의 간호사, 법정의 판사, 감옥의 교도관 등과 심리학의 융합은 그런 권위 체계들을 변형한다. 이런 권위 형태들은 (비록 의심쩍고 수상쩍은 방식이긴 하지만) 심리학의 용어 및 테크닉과 융합하면서 일종의 윤리적 토대를 확장한다. 다시 말해, 권위는 그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의 관점에서 행사되는 한에서 윤리적이게 된다. 따라서 이와 함께 권위 행사의 성격이 변형된다. 권위 행사는 복종과 충성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 즉 학생들, 종업원들, 죄수들, 군인들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행실을 규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권위의 행사는 치료적 문제가 된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그들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³⁴⁾

윤리

역사, 사회학, 인류학은 주체성을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검토해왔다. 일부 저자들, 특히 노베르토 엘리어스(Nobert Elias)는 변화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치, 변화하는 개인 행위의 코드, 주체의 구체적인 내면적 심리 조직의 변화를 연관시키려고 시도했다.³⁵⁾ 다른 이들은 인간의 어떤 내면적 삶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들은 언어 실천과 재현 실천을 단지 설명(accounts)의 레퍼토리로 취급하는데, 이는 주체들이 자신과 타자의 행동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된다.³⁶⁾ 나는 다소 상이한 관점의 접근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는 윤리의 관점에 미세한 인간의 행위, 인간의 태도, 인간의 주관 — 매너뿐만 아니라 욕망과 가치 — 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변화하는 담론들, 테크닉들, 가치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윤리적 차원에 따라 심리학의 테크닉을 검토하는 것이 뒤르껭주의적 의미에서의 가치 영역에 대한 “도덕”과 이에 결부된 사회적 통합 및 연대를 생산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검토는 심리학이 “행위에 대한 통솔”을 위한 실천 및 기준과 결합되었던 방식을 조사한다.³⁷⁾ 수백 년 동안 매너에 관한 매뉴얼, 조언과 지도에 관한 책자, 교육적이고 훈계적 실천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윤리 의식을 주입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경계를 교육하고, 조형하고, 지도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심리학의 테크닉과 협력자들은 인간이 윤리적 존재 — 즉, 도덕적 코드에 따라 스스로를 규정하고 규제하며, 자신의 삶을 통솔하고 판단하는 지각을 정립하고, 스스로 특정한 도덕적 목표를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존재 — 가 되도록 촉진하고 조장했던 방식들을 주입하고 변형했다.

이런 시각에서, 자아에 대한 심리학의 관계가 현실적, 구체적, 창조적 개성과 개인에 대한 중립적인 심리학적 개념들 사이에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1960년대 지능, 인격, 적응의 심리학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의 주제였으며 여전히 “인본주의” 심리학의 주제이다. 하지만 심리학이 개인에 관해 주장하고, 평가하고, 개입하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 심리학이 상이한 장소들과 문제들에서 중요성을 띠게 되는 방식, 심리학이 개인들을 관리하는 현대적 실천들에서 전제되고 있는 자아의 유형과 특정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³⁸⁾

33) 다음을 참조하라. R. Castel in *The Foucault Effect*, op. cit.

34) 다음을 참조하라. N. Rose, *Engineering the human soul*, op. cit.

35) N. Elias, *The Civilizing Process*, Oxford, Blackwell, 1978.

36) R. Harre, *Personal Being*, Oxford, Blackwell, 1983. [역자—이런 유형의 접근은 롬 하레 R. Harre로 대표되는 구성주의 심리학, 특히 담론적 접근의 한 부류에서 두드러진다. 다소 거칠지만 이들은 인간의 내면적 삶을 담론적 구성물 혹은 담론 실천의 산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주체가 동원하는 담론적 자원을 보통 레퍼토리라고 칭한다.]

37) 다음을 참조하라. M. Foucault, *Technologies of the Self*, in L. Martin et al., *Technologies of the Self*, London, Tavistock, 1988.

38) N. Rose, *Governing the Enterprising Self*, in P. Heelas and P. Morris, eds., *The Values of the Enterprise Culture: the moral debate*, London, Unwin Hyman, 1991.

한편으로, 개인들은 주체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개입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되어 왔다. 계산 가능한 주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규정가능하고, 양화가능하고, 선형적이고, 정규 분포적인 특징들, 즉 지능, 성격, 태도 등의 영역들을 지닌다. 동기 부여된 주체는 세계에 대한 내면의 역동적 지향성, 즉 형성되고 충족되는 욕구를 지닌다. 사회적 주체는 연대, 안전, 가치감을 추구한다. 인지적 주체는 의미를 추구하며 신념과 태도를 바탕으로 세계를 탐색한다. 정신역학적 주체는 무의식적 힘과 갈등에 의해 움직인다. 창조적 주체는 실현과 선택을 통한 자율을 추구하며 자유의 실행을 통해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주체성에 대한 규범과 개념은 다원적이다. 하지만 현대적 주체의 각 판본이 가능한 조건은 심리학적 자아로서 개인의 탄생, 즉 생리학과 행위 사이에 위치한 내면적 “도적” 질서를 가리키는 객관성 영역의 출현이다. 이런 영역은 독자적인 법칙과 과정을 가진 내면적 영역이며, 이는 실증적 지식과 합리적 테크닉이 가능한 영역이다.³⁹⁾

다른 한편으로, 심리학은 개인들의 “윤리적” 레퍼토리에 통합되었는데, 다시 말해 심리학은 개인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자신의 존재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을 다잡을 때 사용하는 언어들에 통합되었다. 우리는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차원을 통해 이런 자아에 대한 실천들을 분석할 수 있다.⁴⁰⁾

첫 번째 차원은 도덕적 코드이다. 우리는 자유, 자율, 자아실현, 선택이라는 용어들로 틀이 잡힌 자아라는 표현의 증가를 목도했는데, 이는 지난 50년 동안,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점차 증가해왔다. 다시 말해, 근대적 주체는 정체성의 기획 및 “라이프스타일”의 세속적 기획과 결부되었으며, 여기서 생활과 그것의 사건은 개인적 선택의 산물로 간주될 때 유의미한 것이 되었다. 그런 도덕적 영역이 심리학과 그것의 전문가들을 형성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으며, 우리는 심리학적 가치들을 보다 심층적인 문화적 변형들의 단순한 효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설명의 심리학적 방식들, 진리 주장들, 권위의 체계들이 책임감 있는 자율이라는 이상을 강조하는 도덕적 코드들을 정교화하고, 이런 코드들을 특정한 “치료적” 방향에 따라 조형하며, 이런 코드들을 후기자유민주주의사회들의 정치적 합리성들과 공명하는 개인을 규제하는 프로그램들과 연결시키는데 기여했던 방식을 묘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아의 통솔에 관한 담론들에서 사용된 언어들, 그런 언어들에 계획했던 윤리적 영역, 그런 언어들에 윤리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한 개인의 속성, 그런 언어들에 주장한 개인의 속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식, 피해야하는 위험과 추구해야하는 목표에 대한 조사를 수반한다. 우리는 심리학적 규범들과 가치들이 — 성적 관계와 자녀 양육, 결혼생활과 가족생활, 노동과 여가, 주택구입과 대출과 같은 일상적인 일, 슬픔과 죽음에 대처하는 일,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일에서 — 자아의 행위를 사유하는 방식에 주입되는 양식들을 묘사할 수 있다. 자유의 이런 심리학화된 판본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향상”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최대화”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위하여 — 자녀, 동료, 연인 및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 자신을 “경양”하도록 촉구된다. 왜냐하면 도덕적 코드들의 심리학화는 그런 코드들이 제공하는 생활의 이미지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들과 자아에 대한 특정한 실천 양식 간에 형성된 연결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율에 대한 심리적 제약들은 “정신의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 의식가능하며 합리적 전환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자아는 이미지 일뿐만 아니라 기획이다.

두 번째 조사 차원은 윤리적 시나리오에 관련된다. 이는 도덕적 코드들이 관리되고 부과되는 다양한 장치들과 맥락들인데, 여기에서 치료적 관심이 자기 삶에 대한 경험과 열망하는 자유 및 개성의 이미지들 간의 괴리로 인해 불안해진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심리학적 이미지들과 어휘들은 — 교실과 법정에서, 사회복지사의 방문에서, 의사의 수술에서, 정신병원의 병동에서, 인사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 개인의 행위가 타인과 관련되는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의 모든 실천들에 주입된다. 또한 심리학은 개인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고, 자신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질문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운동과 여가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심문하는 방식들의 변형에 기여했다. 20세기, 지난 40년 동안 일련의 새로운 맥락이 출현했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들은 주저하면서도 심리학적 용어

39) Rose, *Psychological Complex*, op. cit.

40)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책에서 가져온 것이다. N. Rose, *Governing the Soul*, op. cit., Ch. 18. 내가 사용하는 도식은 미셸 푸코의 후기 저술로부터 다소 느슨하게 채택한 것이다.

로 자신의 삶을 문제화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의 관계를 통솔한다. 예를 들면, 분석가의 상담실, 치료집단, 상담세션, 결혼생활상담, 라디오전화상담가 해당한다. 인간관계에 관한 새로운 심리학적 개념을 도구화하려 했던 일련의 새로운 과정과 훈련 경험들이 고안되었다. 기혼 부부로부터 사업 상담에 이르기까지 집합성은 투사(投射)와 동일시라는 무의식적 힘들에 의해 방해받는 집단으로 재인식되었고, 이는 집단적 장애들을 설명하는 새로운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개선 훈련집단(T-group)에서부터 집단요법까지 일련의 새로운 테크닉들 도입했다.⁴¹⁾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인간 주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해 고안되었는데, 치료, 개선, 조언, 지도를 위한 일련의 장소들은 심리학적 방식에 따라 변형되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은 단일한 테크닉에 기여했다. 즉, 이제 개인 각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솔하는 방식에 합리적 테크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삶의 관리는 잠재적으로 일종의 치료가 되었다.

심리학 테크닉의 윤리적 차원의 조사에서 세 번째 측면은 자아의 테크닉들에 관련된다. 자아의 테크닉이란 “자기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개발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반성, 자기-지식, 자기-진단, 자아에 대한 자기 해독, 목표로서의 자아를 통해 사람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변화를 위해 제안된 모델들”이다.⁴²⁾ 심리학은 심리학 전문가들에 의해 발달된 테크닉들을 사용하여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율적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감정, 신념, 행위 양식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들의 개발에 기여했다. 자기를 진단하는 방식들, 자기를 설명하는 어휘들, 자아를 사유하는 방식들과 같이 자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테크닉들이 존재한다. 이런 테크닉들은 생각, 느낌, 자세, 어조 등 자아의 상이한 측면들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곧 차이에 주목해서 그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방식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테크닉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들, 즉 상담실에서의 새로운 대화 방식뿐만 아니라 자녀, 사장, 종업원, 친구, 연인과의 새로운 대화 방식도 수반한다. 그런 테크닉들은 자아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현재상태의 선행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인식론적 방식과도 혹은 의미의 측면에서 상호 작용의 다른 당사자를 고려해 단어나 행동을 이해하는 해석적 방식과도 관련된다. 그런 테크닉들은 자아를 평가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주체의 교육과 관련되는데, 이는 자아의 질병을 진단하고, 자아의 실패와 진보를 측정한다. 그런 테크닉들은 자아를 치료하는 테크닉들을 수반하는데, 이는 카타르시스의 정화 교화, 이해의 해방 효과, 해석의 재구조화 효과, 사유와 감정의 재훈련을 수단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모든 차이를 통괄하면서, 자아의 심리학적 테크닉들은 주체에다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자기-조사, 즉 실현과 자율이라는 심리학적 이미지에 따라 우리의 개인적 경험, 감정, 느낌에 대한 평가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런 심리학적 윤리 안에서, 자아는 자신의 정체성 기획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후기자유민주주의사회들은 보통 개성, 자유, 선택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문명화를 측정한다. 심리학이 발전시킨 자율과 자아-실현이라는 규범들은 개성, 자유, 선택이라는 윤리-정치적 담론들과 완벽히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규범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는 자기-검사, 자기-문제화, 자기-감독의 주입과 그런 규범들이 본질적으로 결부되는 방식이다. [이른바] 주체성 전문가들이 없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그런 [주체성] 지식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주는 어떤 다른 절차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으며, 전문지식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도구들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반세기도 훨씬 전에, 로버트 무질(Robert Musil)은 근대의 특성을 언급했는데,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겪은] 경험에 관해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참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경험도 할 수 없다.⁴³⁾ 오늘날, 설사 전문가들이 참견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조사를 요청하고, 그들에게 상담전화를 걸고, 그들을 은신처에서 찾아낸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 곁에 없더라도, 그들은 우리 내부에 머물면서 설명, 조언, 경고라는 그들의 단어를 귀에 속삭인다. 우리 모두는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 컨퍼런스를 구현하는데, 이들은 우리의 선택과 활동을 기꺼이 선언하고, 우리를 코드겨 삼류 심리치료사인 우리 자아와 관련 맺게 하며, 인간 정신의 아마추어 관리자가 되게 한다.

41) Rose, *Governing the Enterprising Self*, in P. Heelas and P. Morris, eds., *The Values of the Enterprise Culture: the moral debate*, London, Unwin Hyman, 1991.

42) Foucault, *Technologies of the Self*, op. cit., p.29.

43) R. Musil, *The Man Without Qualities*, Vol. 1, London, Picador, [1930] 1979, pp. 174-5.

5. 심리학의 비판적 역사

이 글에서 나의 목적은 물론 예비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심리학의 비판적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비판적 역사는 소란을 일으키고 난파시키는데, 이는 견고해 보이는 것의 취약성, 필연적으로 보이는 것의 우연성, 매우 고결해보는 것의 평범하고 시시한 기원을 밝혀낸다. 비판적 역사는 현재의 지평 및 가능성의 조건을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사유하게 한다. 비판적 역사의 목적은 판단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심리학은 그것이 무엇인가보다는 그것이 행하는 바가 훨씬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심리학은 인간을 사유할 수 있게 하는 방식들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동과 행위를 통치하는 원칙들과 가치들을 변화시켰다. 나아가 심리학은 명시적으로 실증적 지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특정한 사유 방식들에다가 특정한 신빙성을 부여했다. 또한 심리학은 다양한 논리와 공식에 따라 인간 주체를 사유 가능하게 만들고, 과학적 수단을 통해 인간에 관한 사유 방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함으로써 인간 존재로 하여금 타인들이 그들에게 행하는 어떤 것에 따르도록 만든다. 심리학은 일련의 계산된 개입들에 인간을 노출시킨다. 그런 개입들의 목적은 인간 개인의 행위가 지닌 심리학적 기질들과 특성들의 관점으로부터 정식화되었고 그런 개입들의 수단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심리학적 지식의 관점에 따라 반드시 조정된다.

심리학의 비판적 역사의 목적은 주체성의 윤리, 심리학의 진리, 권력의 행사 간의 매우 모호한 함의를 내포한 관계들을 가시화하려는 것이다. 근대 시기에, 그런 비판적 역사는 [한편으로] 우리가 지식의 형태, 전문지식의 유형, 윤리의 토대로서의 심리학과 [다른 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사회에 대항하는 주체성이라는 통치의 딜레마들 간에 [형성된] 구성적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의 공간을 개방하려고 했다.